

## 주방 근대화의 공간철학적 해석

프랑크푸르트 키친과 일본 시스템 키친의 매끈한, 홈패인 공간 비교

### The Spatial-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Kitchen Moderniz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mooth and Striated Spaces in the Frankfurt Kitchen and the Japanese System Kitchen

주 저 자 : 김동헌 (Kim, Donghun)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eastlawkim@gmail.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6.1.657>

접수일 2026. 02. 20. / 심사완료일 2026. 02. 25. / 게재확정일 2026. 03. 09. / 게재일 2026. 03. 30.

## Abstract

In the course of modern and contemporary housing transformations, the kitchen has evolved from a utilitarian space for cooking into a place with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The Frankfurt Kitchen of Germany, designed as the first standardized kitchen, reflected rationality and functionalist thinking by maximizing household efficiency. In contrast, Japan's system kitchen, while influenced by the German model, emerged from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floor-seated cooking to standing kitchens, and developed uniquely in combination with its own residential culture.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he kitchen modernization processes of Germany and Japan, exploring how Western design paradigms were received and adapted in an Eastern context. Through Deleuze's concepts of striated space and smooth space, it confirms that kitchen modernization reflects not merely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broader transformations in lifestyle and social structure.

## Keyword

System Kitchen(시스템 키친), Frankfurt Kitchen(프랑크푸르트 키친), Kitchen Modernization(주방 근대화), Smooth Space(매끈한 공간), Striated Space(홈패인 공간)

## 요약

근, 현대 주거공간의 변화 과정에서 주방은 단순한 조리의 기능적 공간을 넘어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발전하였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최초의 표준화 주방으로, 합리성과 기능주의적 사고를 반영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시스템 키친은 전통적 좌식 생활에서 입식 조리로의 전환을 거치며 독일 모델의 영향을 수용하였고, 동시에 고유한 주거 문화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주방 근대화 과정을 비교하여 동서양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들뢰즈의 홈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 개념을 통해 주방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주방 근대화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생활양식과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근대 주거와 주방 공간의 의미
- 2-2.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주방 디자인
- 2-3. 표준화와 시스템화의 공간적 의미
- 2-4. 들뢰즈의 매끈한 공간과 홈패인 공간

2-5. 분석 프레임워크

### 3. 프랑크푸르트 키친과 시스템 키친

- 3-1. 독일 프랑크푸르트 키친
- 3-2. 일본 시스템 키친

### 4. 사례 비교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근대 주거공간의 발전 과정에서 주방은 단순한 조리의 기능적 공간을 넘어 가족의 생활양식, 젠더 역할,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sup>1)</sup> 특히 20세기 전반기 독일에서 등장한 '프랑크푸르트 키친(Frankfurter Küche)'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표준화 주방으로 평가받으며, 근대 주방 디자인의 원형으로 자리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주부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조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계된 공간으로, 기능주의적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가사노동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보급 정책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였다.<sup>2)</sup>

한편 일본의 '시스템 키친(System Kitchen)'은 전통적인 좌식 생활방식에서 입식 조리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였다. 일본은 서구의 합리적 주방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좁은 주거 환경, 핵가족화, 가전제품의 급속한 보급이라는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일본의 시스템 키친은 모듈화, 표준화, 가전 일체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독일식 근대 주방 개념을 변용하여 아시아적 주거문화와 결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일본의 주방 근대화 과정을 비교하여 동서양의 수용 양상과 변용 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때, 들뢰즈의 혼파이인/매끈한 공간 개념을 통해 주거-주방 공간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방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의 산물이 아니라, 각 사회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결과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근대 주방의 발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주방 디자인과 공간문화의 변화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도연정, 한국 '근대부엌'의 수용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p.18-80, 239 ; 조혜영, 한국 부엌 디자인의 역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1-3
- 2) 노관, 윤재은, '사회 문화적 변화의 관점에서 본 1950년대 미국 주방 디자인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4. 9(3), pp.321-332
- 3) 도연정, 전봉희, '공동주택 LDK평면의 형성에서 보이는 주거문화사적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2014. pp.109-114

## 1-2.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근대 이후 주방 공간의 변화 과정 중 독일과 일본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1926년 마르그레테 슈퇴틀리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가 설계한 '프랑크푸르트 키친'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주방 근대화의 출발점으로서 합리적 동선, 모듈화, 기능적 배치라는 근대 디자인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시스템 키친(System Kitchen)'을 분석 범위로 하였다. 일본의 시스템 키친은 전통적 좌식 부엌 구조에서 입식 조리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구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일본의 주거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맞게 변용된 대표적 근대 주방 사례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근대 주방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와 디자인사 자료를 검토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이어서 프랑크푸르트 키친과 일본 시스템 키친의 설계 배경, 공간 구성, 사회문화적 의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사례의 차이와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방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표준화와 효율성', '전통과 변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수용 과정이 지닌 함의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주방 공간이 단순한 기능적 장소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산물임을 밝히고,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근대 주거와 주방 공간의 의미

근대 주거의 발전은 단순히 건축 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활양식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주거 공간은 효율성과 위생, 합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주방은 가사노동의 중심이자 가족의 생활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서 근대 주거의 효율적 설계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다.<sup>4)</sup>

전통적 주방은 화로, 가마 등의 조리 도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조리와 난방, 가족 공동생활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주방은 점차 조리 전용 공간으로 분리되었고, 위생적 환경을 확

4) 도연정, op.cit. 2018, pp.57-80

보하는 동시에 노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방은 단순한 부엌이 아니라, 근대 주거가 지향한 합리적 생활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5)</sup>

또한 주방 공간은 사회적·젠더적 역할과도 깊이 연관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공동체적이고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는 주부의 전유 공간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근대적 가부장제,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 그리고 ‘효율적인 주부’라는 사회적 이상과 직결되어 있었다.<sup>6)</sup> 따라서 주방의 근대화는 단순한 설계상의 개선을 넘어, 사회적 역할과 가치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대 주거에서 주방 공간은 위생과 합리성, 효율성과 표준화라는 근대적 가치가 응축된 공간일 뿐 아니라, 가족 관계와 젠더 역할, 더 나아가 사회적 질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방은 근대 주거공간 연구에서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 2-2.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적 디자인 원리

근대 건축과 디자인의 전개 과정에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는 핵심적 이념으로 자리하였다. 합리주의적 설계는 공간과 형태를 미적 장식보다 효율성과 논리적 질서에 따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기능주의는 건축과 디자인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주거공간의 재구성, 특히 주방의 근대화 과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주방 공간에서 합리주의적 접근은 조리 동선의 과학적 분석, 작업 영역의 체계적 분할, 모듈화된 가구 배치를 통해 구현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이러한 합리주의의 대표적 산물로, 주부의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삼각형(work triangle)’ 개념을 적용하고, 수납과 조리, 세척 영역을 분리하여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는 더 이상 전통적 경험과 관습에 의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측정에 의해 조

직되는 기능적 장치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기능주의적 원리는 또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라는 명제 속에 압축되어 나타났다. 이는 주방 공간에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위생적이고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행위에 최적화된 형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sup>7)</sup> 이러한 기능주의는 주방을 표준화·규격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주방이 현대 산업 디자인과 밀접히 연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적 디자인 원리는 근대 주방의 공간적 특징을 규정한 근본적 사상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주방의 근대화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설계 방식의 도입이 아니라, 근대 사회가 지향한 효율·위생·합리성의 가치가 공간에 구현된 결과였다.

## 2-3. 표준화와 시스템화의 공간적 함의

근대 주방의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표준화와 시스템화이다. 표준화란 주방의 치수, 가구, 설비를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제작·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스템화는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일된 공간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근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체계와 결합하면서 주방 공간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sup>8)</sup>

표준화는 주방을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핵심 도구였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작업대의 높이, 수납장 위치, 동선 길이를 주부의 신체 치수와 동작을 기반으로 규격화함으로써 주방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였다.<sup>9)</sup> 이러한 접근은 주방이 더 이상 개인적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공학(principles of ergonomics)에 근거한 합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었다.

시스템화는 표준화된 요소들을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통일된 공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일본의 ‘시스템 키친(System Kitchen)’은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수납 공간을 모듈화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후 전가·가스·수도·환기 등 인프

5) 정찬미, 김현정, '20세기 초 한국과 유럽의 부엌 계획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부엌을 중심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18(2), pp.50-60

6) 윤택림, ‘해방 이후 한국 부엌의 변화와 여성의 일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가족과 문화, 2004. 16.3, pp.3-41

7) 진애리, 최경란, '시대적 가치관에 따른 주방 및 주방 디자인 변화', 한국디자인포럼, 2011. 32(-), pp.473-486

8) Barbara Penner, 'The Cornell Kitchen: Housing and Design Research in Postwar America.', Technology and Culture, 2018. 59.1 pp.48-94

9) 노관, 윤재은, op.cit. 2024, pp.321-332

라와 가전제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주방을 단일 기능 공간이 아닌, 조리·수납·가전·위생이 통합된 시스템적 장치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와 시스템화는 주방의 사회적 의미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방이 규격화됨으로써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의 위생과 효율이 보장될 수 있었으며, 이는 대량 주택 건설과 보급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동시에 시스템화된 주방은 소비자에게 선택 가능한 모듈과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화된 틀 안에서 개인화된 변형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결국 주방의 표준화와 시스템화는 근대 주거의 합리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현대 주방 디자인이 산업적 생산과 사용자 경험의 교차점에서 진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는 주방을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사회적·산업적·문화적 체계가 집약된 복합적 공간으로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 2-4. 들뢰즈의 흠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F. Guattari)는 『천개의 고원』에서 공간을 단일한 물리적 장으로 보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계, 권력, 규칙, 행위의 흐름이 결합된 배치(agencement)로 이해하였다. 이들의 논의에서 공간은 크게 흠패인 공간(striated space)과 매끈한 공간(smooth space)이라는 두 개념적 양극 사이에서 구성되며, 실제 공간은 대개 두 성격이 혼재된 형태로 나타난다.<sup>10)</sup>

흠패인 공간은 측정, 구획, 위계, 규율을 통해 조직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서 행위는 규칙과 프로토콜에 의해 정렬되고, 사용자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특정 위치와 동선에 배치된다. 흠패인 공간은 경계가 분명하고, 활동이 기능별로 분절되며, 행위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반복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sup>11)</sup> 근대 주거의

합리주의적 설계 원리, 표준화된 치수 체계, 인간공학 기반의 작업 분할은 흠패인 공간을 강화하는 대표적 기제라 할 수 있다.

매끈한 공간은 흐름, 가변성, 사건 중심의 사용을 통해 구성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서는 경계가 완만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구성되며, 행위는 고정된 규칙보다는 관계와 사건의 전개에 의해 조직된다. 매끈한 공간은 단순히 “열려 있는(open) 공간”과 동일하지 않다.<sup>12)</sup> 오히려 매끈한 공간은 사용자의 다양한 참여와 다중 행위자의 공존, 가구·설비·행위가 상황적으로 조합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두 공간의 구분은 공간을 구성하는 규칙의 강도와 행위의 조직 방식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3)</sup>

이러한 흠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의 구분은 추상적 공간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 생활공간의 분석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주방은 단순한 기능적 설비의 집합이 아니라, 행위의 순서, 역할의 분담, 신체의 동선, 가족 관계가 조직되는 장이라는 점에서 공간의 규칙성과 흐름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대 주방은 조리, 세척, 수납이라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할하고, 신체 동선을 최소화하며, 표준화된 모듈과 설비를 통해 사용 방식을 선제적으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특징은 공간이 행위를 훈육하고 역할을 고정하는 흠패인 공간의 성격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나 동일한 표준화와 시스템화가 언제나 동일한 공간 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주방이 거실·식당과 결합하여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가전·설비가 다양한 생활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할 때, 공간은 단일한 작업 프로세스를 넘어 사건과 관계 중심의 흐름을 생성한다. 이 지점에서 주방은 매끈한 공간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들뢰즈가 언급하였듯이 흠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은 본질적으로 분리된 두 유형이 아니라, 공존하는 두 작동 방식이다. 동일한 공간에도 역사적 맥락과 해석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성격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에서 주방은 위계적 질서와 관습적 노동

pp.289-310 ; 윤희진, 이성호, op.cit. 2013, pp.391-416

12) 이한나, 이정민, '아키그램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디자인의 노마돌로지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0. 11(2), pp.217-230

13) 김석영, 김문덕, '질 들뢰즈의 공간담론에 기초한 램 콜라스 실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18(3), pp.47-56

10)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 Les Editions de Miunit, 1980, p.593 ; 윤희진, 이성호, '들뢰즈의 미학이 현대건축에서 다중성의 개념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2013. 26(-), pp.391-416 ; 『천개의 고원』에서는 이 공간을 “두 공간은 사실 서로 섞인 상태로만 존재함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두 공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11) 김재인, '매끈한 공간 대 흠 패인 공간: 전쟁기계, 또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들뢰즈의 공간의 정치철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18. 79(-),

구조라는 측면에서 흠패인 공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가족 공동의 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끈한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주방 근대화는 단순히 기능적 합리화의 역사라기보다, 규율을 강화하는 흠패인 공간의 기제와 생활의 흐름을 확장하는 매끈한 공간의 기제가 어떻게 재배치되는가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는 흠 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이라는 양극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서 프랑크 푸르트 키친과 일본 시스템 키친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흠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의 스펙트럼

### 2-5. 분석 프레임워크

앞서 논의한 들뢰즈의 흠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은 물리적 형태의 차이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이 행위를 조직하는 방식과 규칙의 작동 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주방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구체적 분석 단위로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흠패인 공간의 핵심 속성을 ‘경계의 명확성’, ‘행위의 규율화’, ‘역할의 고정성’, ‘기술에 의한 프로토콜화’, ‘사회적 위계의 구조화로 정리하고, 매끈한 공간의 속성을 ‘경계의 완화’, ‘사건 중심 사용’, ‘조합 가능성’, ‘기술을 통한 확장성’, ‘다중 행위자의 공존’으로 도출하였다.

이때 주방은 근대화 과정에서 표준화·모듈화·시스템화가 가장 집약적으로 실험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흠패인/매끈한 공간의 작동 방식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방은 (1) 물리적 경계를 통해 생활과 노동을 분리하고, (2) 조리라는 일련의 행위를 동선과 기능에 따라 조직하며, (3) 모듈과 설비를 통해 사용 방식을 규정하고, (4)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 행위를 프로토콜화하며, (5) 가족 내 역할 분담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의 규칙성과 행위 조직 방식이 드러나는 다섯 개의 차원을 분석 축으로 설정하였다. 즉, 공간의 구조적 기획 방식(S1), 행위의 조직 원리

(S2), 모듈과 표준화의 작동 방식(S3), 기술인프라의 개입 수준(S4),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 구성(S5)을 지표로 도출하였다. 이 다섯 차원은 흠패인/매끈한 공간의 이론적 속성을 주방이라는 구체적 공간 체제에 대응시키기 위한 연역적 분석 틀이다.

[표 1] 분석 지표 및 핵심 질문

코드	지표	핵심 질문
S1	경계의 강도	주방-생활공간 경계가 강하냐, 완만하냐
S2	작업 규율성	행위가 표준 프로세스로 고정되는가
S3	모듈 옵션 위상	모듈이 사용을 규정하는가, 확장하는가
S4	기술 인프라 통합	기술이 프로토콜을 강화하는가, 사건을 확장하는가
S5	사회적 다중성	단일 행위자 공간인가, 다중 행위자 공간인가

S1. 경계의 강도 : 주방과 인접 생활공간(거실/식당/복도) 사이의 물리적·시각적·동선적 경계의 강도를 평가한다. 경계가 강할수록 행위가 분리, 전문화되며 흠패인 성격이 강화된다. 경계가 완만할수록 다중 행위자의 참여와 사건 중심 사용이 가능해 매끈한 성격이 강화된다.

S2. 작업 규율성 : 조리 행위가 표준 프로세스로 조직되는 정도(동선의 고정, 기능 분할, 단일 사용자 중심 여부)를 평가한다. 작업 규율성이 강할수록 주방은 작업장으로서 흠패인 성격이 강화된다.

S3. 모듈 옵션 위상 : 모듈화가 사용을 ‘규정’하는 체제(regime)로 작동하는지, 혹은 다양한 조합과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platform)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한다. 모듈이 사용자의 역할과 행위를 강하게 고정하면 흠패인, 옵션 조합이 사용 시나리오를 확장하면 매끈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S4. 기술 인프라 통합 : 수도/가스/전기/환기 및 가전 통합이 사용을 프로토콜화(절차·규칙·표준 행위의 강화)하는지, 혹은 사용 편의와 다기능화를 통해 사건 가능성을 확장하는지 평가한다. 기술 통합은 편의성과 동시에 규율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본 지표는 “자동화=매끈한”라는 단순 도식을 경계하고 양면성을 분석한다.

S5. 사회적 다중성 : 주방이 단일 행위자의 전유 공간인지, 가족 구성원 등 다중 행위자가 공존하는 공간인지 평가한다. 다중성이 높을수록 주방은 생활 사건의

장으로 확장되며 매끈한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3. 프랑크푸르트 키친과 시스템 키친

#### 3-1. 독일 프랑크푸르트 키친

##### 3-1-1. 프랑크푸르트 키친의 설계 배경

프랑크푸르트 키친(Frankfurter Küche)은 1926년 오스트리아 출신 여성 건축가 마르가레테 슈퇴틀리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의 대규모 공공주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계한 주방이다.<sup>14)</sup>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심각한 주거난과 사회적 혼란에 직면했으며, 특히 도시 노동자 계층을 위한 저렴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프랑크푸르트는 ‘신건축 운동(Neues Bauen)’의 일환으로 기능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모델을 적극 도입하였다.

주방은 당시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었으나, 전통적인 주방은 비효율적이고 위생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슈퇴틀리츠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하나의 “작업 과정(work process)”으로 간주하고, 산업공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발전한 테일러리즘(Taylorism,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주의(Fordism, 대량생산 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사노동의 동작을 세분화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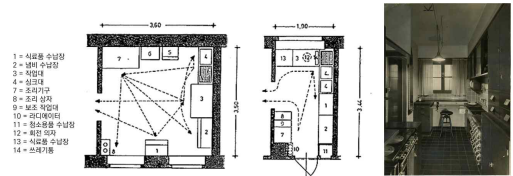
또한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전후 독일 사회가 지향하던 사회개혁적 의지와도 맞닿아 있었다. 공공주택 건설은 단순한 물리적 주거 공급을 넘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위생적 환경을 보급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로 인식되었다. 주방의 합리화는 근대적 생활문화 정착의 핵심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당시 여성의 역할 변화와도 긴밀히 연관되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주방은 “현대적 주부”의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키친의 설계 배경은 단순한 건축적 실험이 아니라, 전후 사회의 주거난 해결, 산업공학 효율성 도입, 생활양식 개혁, 여성 역할 변화라는 복합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배경은 이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근대 주방 디자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었다.

14) 도연경, op.cit. 2018, pp.67-72

#### 3-1-2. 공간 구성 및 디자인 특성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약 6.5㎡(2m × 3.5m) 크기의 소형 공간에 조리, 세척, 수납 기능을 집약적으로 배치한 최초의 표준화 주방으로 평가된다. 공간 설계는 효율성, 위생성, 모듈화라는 세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근대적 기능주의 디자인의 핵심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



[그림 2] (좌측 평면) 프랑크푸르트 키친 전 독일 주방의 작업선, (우측 평면) 프랑크푸르트 키친의 작업 동선 (우 이미지) 프랑크푸르트 키친<sup>15)</sup>

첫째, 효율적 동선의 구현이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작업 삼각형(work triangle)’ 개념을 토대로 조리대, 싱크대, 조리 기구 보관 영역을 최소 동선으로 연결하였다.<sup>16)</sup> 이를 통해 주부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조리 과정을 연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사노동을 산업공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주방을 “가정 내 생산성의 중심”으로 재정의한 시도였다.

둘째, 공간의 위생성과 질서 확립이다. 전통적 주방은 연기, 불, 식재료로 인해 혼란스러운 환경을 가지기 쉬웠다. 이에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구조, 내구성과 세척이 용이한 재료(알루미늄, 리놀륨 등) 사용, 쓰레기 처리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당시 근대 사회가 강조하던 공공 위생과 합리적 생활문화의 요구를 공간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셋째, 모듈화와 표준화된 설비이다. 수납장은 상부와 하부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식재료와 도구를 용도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랍과

15) 이미지 출처: Werkbund Archiv Museum der dinge, URL: [museumderdinge.org/programme/exhibitions/the-frankfurt-kitchen/](http://museumderdinge.org/programme/exhibitions/the-frankfurt-kitchen/), 범례재구성

16) 도연경, ‘릴리언 길브레스의 ‘순환작업공간’과 다이어그램의 부역 - 작업삼각형에 내재한 과학적 관리법의 동작연구와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22. 33(4), pp.23-34.

선반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모듈화는 가구와 설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방이 하나의 ‘시스템적 장치(systemized apparatus)’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인체공학적 설계이다. 조리대와 작업대의 높이는 평균적인 여성의 신체 치수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서랍과 선반의 깊이 또한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이는 인간 중심적 디자인(human-centered design)의 초기 사례로, 사용자의 행위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의 공간 구성과 디자인 특성은 주방을 효율적, 위생적, 표준화된 생산 공간으로 전환시킨 근대적 혁신을 보여준다.<sup>17)</sup> 이 주방은 단순히 가사 노동을 돕는 공간을 넘어, 근대 건축과 디자인이 지향한 합리성과 기능주의를 일상생활 속에 구현한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 3-1-3. 주거 문화 및 사회적 함의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단순한 주방 설계를 넘어, 근대 주거문화와 사회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친 상징적 공간이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위상과 주부의 역할 규정에서 나타났다. 전통적 주방이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면,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철저히 “주부 전용의 작업장”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합리화된 시스템 속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가정 관리”라는 근대적 이상을 제시하였다.<sup>18)</sup>

또한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근대적 생활문화의 보급 장치로 기능하였다. 공공주택 단지에 대량 보급된 이 주방은 위생과 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주거의 근대화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까지 규율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근대 도시에서 ‘합리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작동하였다.<sup>19)</sup>

더 나아가 이 주방은 산업생산과 소비문화의 확산에

17)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96-98

18) Noemí Gómez Lobo, Diego Martín Sánchez. 'Daidokoro Monogatari: Stories of the Japanese house from the kitchen.', Cuadernos de Proyectos Arquitectónicos 2021. vol.11, pp.89-92.

19) 도연경, op.cit. 2019, pp.67-72

도 기여하였다. 표준화된 주방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가구 산업과 주방 가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주방 공간이 체계화되면서, 조리도구수납용품가 전제품 등이 통합된 “주방 시스템”으로서 상품화되었고, 이는 현대 주방 산업의 기초가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따라서 근대 주거문화 속에서 효율 위생 규율 소비라는 근대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집약적으로 구현한 공간이었다. 이는 주방을 단순한 가정 내 부속 공간이 아닌, 근대 사회의 이념과 질서를 반영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 3-2. 일본 시스템 키친

### 3-2-1. 전통적 주방 구조와 근대화 이전의 특징

일본의 전통 주방인 다이도코로(台所)는 좌식 생활 문화를 반영한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조리는 주로 바닥에 설치된 가마도(竈, kamado)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는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음식을 준비하였다(그림 3-좌). 이러한 좌식 방식은 조리 과정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연기와 열, 습기 문제로 위생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림 3] (좌)가마도, Nihon Minka Open-Air Museum, photo by Hu Totya, (우)가테구치, photo by Richard Herke<sup>20)</sup>

전통적 주방은 또한 주거 내에서의 위계적 배치라는 특징을 보였다. 다이도코로는 가옥의 후방에 위치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 공간이나 가족이 함께 머무는 거실과는 가테구치(勝手口, katteguchi)라 불리는 문으로 명확히 분리되었다(그림 3-우). 이는 주방을 가족 내 여성의 전유 공간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성격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남성 중심의 주거 공간 질서 속

20) 이미지 출처 URL: (좌) japanobjects.com/features/japanese-kitchen, (우) www.deutsche-gefängene-in-japan.de/2212/221233.htm



맞게 변용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용 과정은 이후 일본식 시스템 키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디자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 3-2-3. 일본식 시스템 키친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일본의 시스템 키친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근대 주방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초기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키친의 합리적 동선과 모듈화 개념을 수용하여 효율적인 입식 조리 공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사회적 변화—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더불어 시스템 키친은 점차 다기능적이고 생활 지향적인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첫째, 모듈화와 산업화된 대량생산 체계의 정착이다. 일본의 대형 주택 기업과 주방 전문 기업은 주방을 독립적인 상품으로 규격화하고, 싱크·조리대·수납·가전제품을 일체화한 모듈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좁은 주거 면적에서도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했으며, 주방의 표준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빠른 보급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가전제품과의 결합이다. 일본 시스템 키친은 초기 단계부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가전과 밀접히 연계되며 발전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IH 조리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이 주방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단순한 조리 공간을 넘어 생활기술의 집약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독일 모델과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일본의 시스템 키친이 기술 집약적 성격을 띠게 한 결정적 요소였다.

셋째, LDK 구조와의 결합이다. 일본 주거에서 주방은 거실과 식당을 통합한 LDK 구조와 연결되며, 가족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재정의되었다. 이는 주방이 더 이상 폐쇄적이고 여성 전유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는 열린 장소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방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현대 일본 주거문화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넷째, 현대적 의미와 확장이다. 21세기에 들어 일본 시스템 키친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높낮이 조절식 조리대, 자동화된 수납 시스템, IoT 기반의 조리 보조 시스템은 사용자 맞춤형 주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 키친이 단순한 근대적 합리화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

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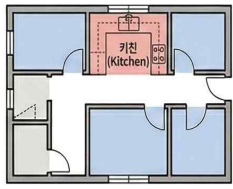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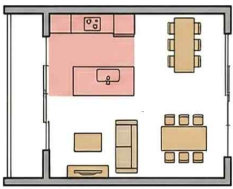
결국 일본식 시스템 키친은 독일 모델을 수용하여 출발했지만, 이를 자국의 주거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변용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날 시스템 키친은 일본 주거문화의 상징적 산물로, 효율성과 생활성, 기술성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현대적 주방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된다.

## 4. 사례 비교 분석

### S1. 경계의 강도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주방을 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된 소형 작업장으로 설정함으로써, 조리 행위를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 분리하고 “전문화된 가사 노동”으로 규정한다. 이는 공간의 경계를 통해 행위를 분절하는 전형적 홈페인 전략이다. 일본 시스템 키친은 LDK 구조와 결합하며 주방과 거실/식당 사이의 경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조리는 폐쇄적 노동에서 가족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생활 사건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경계 완화는 매끈한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화한다.

[표 2] 경계의 강도 비교

프랑크푸르트 키친	시스템키친
	
<p>주방을 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 소형 작업장으로 설정. 조리 행위를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 분리, ‘전문화된 가사 노동’으로 규정.</p>	<p>LDK 구조와 결합하며 주방과 거실/식당 사이의 경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조리는 가족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생활 사건으로 확장되어 경계가 완화됨.</p>

### S2. 작업 규율성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가사노동을 하나의 생산 공정으로 간주하여 작업 단계를 분할하고 동선을 고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행위를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조직하였다. 이는 공간이 사용자를 교육하고 규율하는 홈페인

체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 시스템 키친은 효율적 동선과 기능 분할을 유지하면서도 LDK 구조와 결합하여 가족 구성원의 참여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조리 행위는 단일 노동 프로세스를 넘어 생활 사건과 중첩되며, 작업 규율성은 유지되되 완화된 혼성 구조로 전환된다.

**[표 3] 작업 규율성 비교**

구분	푸랑크푸르트 키친	시스템키친
작업 구조	조리·세척·수납 기능을 명확히 분할하여 단일 작업 프로세스로 조직	기능 분할은 유지되되 생활공간과 결합하며 사용 시나리오 확장
동선 체계	최소 동선 원리에 따라 작업 흐름을 고정	효율적 동선 유지하나 다중 사용 가능성 증가
사용자 전제	단일 사용자(주부) 중심의 설계	가족 구성원 참여 가능성 확대
행위 성격	가사 노동을 생산 공정처럼 표준화	노동과 생활 사건이 중첩되는 구조

### S3. 모듈 옵션의 위상

푸랑크푸르트 키친의 모듈화는 공공주택 대량 보급의 논리 속에서 “사용의 규격”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로 작동한다. 즉 모듈은 선택의 플랫폼이라기보다 규율의 장치이며, 사용자의 역할(주부)과 행위를 특정 방식으로 고정한다. 일본 시스템 키친의 모듈화는 시장의 옵션 체계와 결합하면서, 동일한 표준 틀 안에서 다양한 조합을 허용하는 플랫폼적 성격을 강화한다. 이때 표준화는 규율만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의 확장이라는 효과도 생산한다.

**[표 4] 모듈 옵션 위상**

구분	푸랑크푸르트 키친	시스템키친
모듈	공공주택 대량 보급 정책 속에서 표준 모델로 개발 사용 방식을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체제	민간 주택시장 및 주방 전문 기업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 동일한 표준 틀 안에서 조합을 허용
선택권	설계가 역할과 동선을 고정하여 제한적	옵션 선택과 구성 가능

공간 통제	규격이 사용자를 규율하고 행위를 고정	규격은 유지되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 형성
행위 성격	가사 노동을 생산 공정처럼 표준화	노동과 생활 사건이 중첩되는 구조

### S4. 기술 인프라 통합

푸랑크푸르트 키친에서 설비와 재료의 통합은 위생과 효율을 중심으로 절차를 표준화하며, 사용을 일정한 관리 체계 속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은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행위의 규격을 강화하는 매개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시스템 키친의 가전 일체화는 주방 사용을 더욱 촘촘한 프로토콜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홈페인 경향을 강화시키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시에 자동화와 편의성은 조리 행위의 부담을 경감시켜 다양한 생활 사건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술 통합은 규율과 흐름을 동시에 산출하는 양가적 기제로 이해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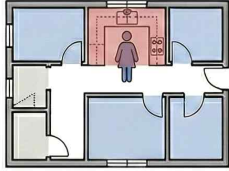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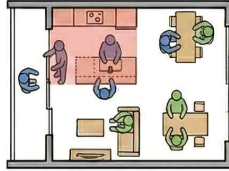
**[표 5] 기술 인프라 통합**

구분	푸랑크푸르트 키친	시스템키친
통합 목적	위생 확보 및 작업 효율 극대화	가전 일체화를 통한 편의성 및 기능 확장
역할 및 방식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용을 관리 체계로 유도	사용 과정을 세분화·자동화하여 프로토콜 강화
생활 확장 가능성	효율 중심의 관리 체계로 확장이 제한적	자동화로 다양한 시나리오 확장 가능

### S5. 사회적 다중성

푸랑크푸르트 키친은 단일 작업자를 전제한 설계를 통해 주방을 가족 공동의 장소가 아닌 주부 전유의 생산 공간으로 재규정한다. 이는 젠더화된 역할 분담을 공간적으로 고정하며 사회적 다중성을 억제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반면 일본 시스템 키친은 주방을 가족 소통의 중심으로 재배치하면서 다중 행위자 공존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노동과 상호작용이 중첩되는 구조 속에서 주방은 생활 사건의 장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다중성의 증가는 매끈한 성격을 강화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표 6] 사회적 다중성 비교

프랑크푸르트 키친	시스템키친
 <p>주방을 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 소형 작업장으로 설정. 조리 행위를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 분리, 전문화된 가사 노동으로 규정.</p>	 <p>LDK 구조와 결합하며 주방과 거실/식당 사이의 경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조리는 가족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생활 사건으로 확장되어 경계가 완화됨.</p>

다음 [표 7]은 앞서 설정한 다섯 가지 지표(S1~S5)를 기준으로 프랑크푸르트 키친과 일본 시스템 키친의 공간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강도는 각 지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상대적 우위를 기호(>, <, ≤)로 표시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우열 판단이 아니라 두 사례가 동일한 근대화 기제를 어떻게 상이하게 공간 체제로 구현하였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분석적 장치이다.

[표 7] 상대 비교 분석 결과

지표	프랑크푸르트 키친	비교 강도	일본 시스템 키친
경계의 강도	주방을 분리된 작업장으로 구성	>	LDK 결합으로 경계 완화 경향
작업 효율성	동선 최소화·기능 분할·단일 사용자 중심	>	효율 중심이나 가족 참여로 효율성 완화 가능
모듈·옵션 위상	표준 모듈이 사용을 고정(규격 주도)	>	모듈+옵션 시장으로 조합 가능성 확대
기술 인프라 통합	위생·재료·설비 통합으로 절차 표준화	≤	가전 일체화로 프로토콜 강화 + 편의 확장 동시 발생
사회적 다중성	주부 전유의 단일 작업자 구조 강화	<	가족 소통 중심으로 다중 행위자 가능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경계의 분리, 동선의 고정, 모듈의 규격화, 단일 사용자 전제를 통해 전반적으로 효율 중심의 홈페인 공간 체제를 강하게 구현한다. 반면 일본 시스템 키친은 표준화와 기술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LDK 결합과 옵션 체계를 통해 다중 행위와 생활 사건의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효율과 흐름이 공존하는 혼성적 공간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본 비교는 주방 근대화를 단순한 효율성의 진전으로 이해하기보다, 규율의 공간에서 혼성적 공간 체제로 재조합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키친과 일본의 시스템 키친을 중심으로 주방 근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사례는 모두 근대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구현한 대표적 주방 모델이지만, 그 발생 배경과 수용 양상, 사회적 함의에서 차이를 보였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적 프로젝트의 산물로, 공공주택 보급과 함께 합리적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방은 주부의 전유 공간이자 효율적 노동 공간으로 규정되었으며, 위생과 질서를 강조하는 근대 사회의 가치가 집약된 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경제·동선·역할을 통해 가사노동을 효율화하는 홈페인 체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시스템 키친은 독일 모델의 기능주의적 원리를 수용하면서도, 좁은 주거 공간, 핵가족화, 급속한 산업화와 같은 자국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변용되었다. 특히 가전제품과의 결합, LDK 구조와의 통합은 일본 주방이 단순한 조리 공간을 넘어 가족 소통과 생활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혼성 체제로 발전함으로써 매끈한 공간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주방 근대화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각 사회의 생활양식, 문화적 가치, 산업 구조가 반영된 복합적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은 합리성과 기능주의에 기반한 공공주택 모델을 통해 근대적 주거문화를 정립했으며, 일본은 이를 변용하여 산업화된 시스템 키친을 발전시킴으로써 현대적 생활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켰다.

본 연구는 프랑크푸르트 키친을 홈페인 공간으로, 일본 시스템 키친을 매끈한 공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사례는 효율과 흐름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였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기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약화되었는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공간을 고정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공간 체계로 이해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방 공간을 통해 근대 주거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주방 근대화 역사의 과정은 오늘날 스마트 키친, 친환경 주방 등 현대 주방 디자인이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 참고문헌

1.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2. Deleuze, Gilles &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 Les Editions de Minuit』, 1980.
3. 김석영, 김문덕, '질 들뢰즈의 공간담론에 기초한 렘 콜하스 실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4. 김재인, '매끈한 공간 대 흠 파인 공간: 전쟁기계, 또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들뢰즈의 공간의 정치철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18.
5. 노관, 윤재은, '사회 문화적 변화의 관점에서 본 1950년대 미국 주방 디자인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4.
6. 도연정, '릴리언 길브레스의 '순환작업공간'과 다이어그램의 부역 - 작업삼각형에 내재한 과학적 관리법의 동작연구와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22.
7. 도연정, 전봉희, '공동주택 LDK평면의 형성에서 보이는 주거문화사적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4.
8. 윤택림, '해방 이후 한국 부역의 변화와 여성의 일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가족과 문화, 2004.
9. 윤희진, 이성호, '들뢰즈의 미학이 현대건축에서 다중성의 개념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2013.
10. 이한나, 이정민, '아키그램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디자인의 노마돌로지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0.
11. 정찬미, 김현정, '20세기 초 한국과 유럽의 부역 계획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 박길용의 개량부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부역을 중심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12. 진애리, 최경란, '시대적 가치관에 따른 주방 및 주방 디자인 변화', 한국디자인포럼, 2011.
13. Noemí Gómez Lobo, Diego Martín Sánchez, 'Daidokoro Monogatari: Stories of the Japanese House from the Kitchen', Cuadernos de Proyectos Arquitectónicos, 2021.
14. Barbara Penner, 'The Cornell Kitchen: Housing and Design Research in Postwar America', Technology and Culture, 2018.
15.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6. 도연정, '한국 '근대부역'의 수용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7. 조혜영, '한국 부역 디자인의 역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8. Michelle L. Hauk, 'From Doma to Daidokoro: Japanese Kitchens', The Architectural Review, 2022.01.12.
19. www.deutsche-gefangene-in-japan.de
20. museumderdinge.org
21. japanobjects.com